

'5G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논의 장 연다

과기부 '5G 버티컬 서밋 2018'
13~14일 서울프라자 호텔에서 개최



통신기술협회(TTA), 한국통신학회(KICS), 5G 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프로그램은 ▲ 해외 주요 전문가들의 기조연설 ▲ 국내외 기술·서비스 동향 ▲ 참석자들 간 패넬 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관람객이 5G 융합서비스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부스도 함께 운영한다. 화재, 지진 등 재난·안전 대응 서비스,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스마트공장 솔루션 등이다. 행사 참가비는 무료다. 온라인 사전 등록이나 행사당일 현장 등록을 하면 된다. /김재웅 기자 juk@

5세대(5G) 이동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만들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5G 버티컬 서밋 2018'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G 이동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한 국내 동향을 살펴보고, 홍보와 인식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과기부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가코리아사업단, 한국정보



국민연금, 글로벌 수탁은행 SSBT 전주사무소 개소 추진 국민연금공단이 글로벌 수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SSBT)의 전주사무소 개소를 추진한다. 공단은 지난 9일 본부에서 SSBT와 해외투자 자산 관리업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글로벌 투자 자산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관·관리 등을 위해 지난 9월 SSBT를 해외 주식·대체자산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조셉 홀리(Joseph L. Hooley)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한화갤러리아, 희망트레이너 페스티벌 개최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10일 충남 예산 리솜리조트에서 전국 6개 복지관 및 지역 아동센터 소속 취약계층 아동 75명이 참여하는 '희망트레이너 페스티벌'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갤러리아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트레이너'에 참여 중인 전국 각지의 아동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는 축제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화갤러리아



도미노피자 '배달 안전 캠페인' 실시 도미노피자가 안전한 배달 문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배달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미노피자가 발표한 '안전 운전 항목'은 헬멧, 무릎 보호대 등 운행 전 보호장구 착용과 운전 시 황색 불, 횡단보도, 전방 주시 태만 등 교통 위반 금지 사항, 과속방지턱, 제동 거리, 골목길 및 커브길 주행 주의와 같은 방어 운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도미노피자

티웨이항공, 11~12월 임박편 특가이벤트

편도 기타큐슈 4만8400원 부터



티웨이항공이 올 연말까지 당장 떠날 수 있는 '11~12월 임박편 특가 이벤트'를 실시한다. 11월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8일까지 일주일 간 항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면 된다. 인천과 대구, 부산, 김포, 제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대상으로 탑승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다. 일부 제외 기간이 있고 예약 상황에 따

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국제선 편도 총액 운임 최저가격은 기타큐슈 4만8400원, 후쿠오카·오사카 5만3400원, 구마모토 5만8400원, 칭다오 6만400원, 오키나와 6만1400원, 가오슝·타이중 7만4400원, 하노이 10만7000원, 다낭 10만7900원, 괌 15만520원 등이다. /양성운 기자

원고료 2만원의 충격



홍경안 역
시시일각

몇 해 전, 모 지자체가 주최하는 미술 행사의 주요 위원직을 맡은 적이 있다. 행사전반의 운영방향을 결정하고 예산까지 들여다보는 막중한 자리였다. 하지만 1년 만에 그만뒀다. 아니, 정확히 말해 권력을 전 핵심인사에게 뱉보여 그의 '패밀리'에서 제외되었다는 게 맞았다. 당시 감정을 글로 옮겨보면 그야말로 '썩쓸거거나 출가분하거나'였다. 어딜 가나 존재하는 계파와 코드, 지연과 학연을 배경으로 한 패거리정치의 민낯에 썩쓸렸고, 수정되지 않을 것을 느끼면서도 매번 부딪히고 좌절하던 과정을 그만해도 된다는 점에선 출가분했다. 책임의 무게에 미치지 못하던 대가의 불균형을 더 이상 체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도 미련에서 멀어진 이유였다. 물리적 거리만 해도 하루를 온전히 소비해야 하는데, 몇날 며칠의 연구와 고민을 거쳐 서너 시간 이상 회의의 또는 토론에 임한 보수치곤 매우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이 중 미술매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임금 노동구조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까지 나서 '미술진흥중장기계획'을 발표하며 비평가에 대한 처우개선 및 양성 기조를 밝혔지만 한해가 저무는 오늘까지도 달라진 건 별로 없다. 여전히 6000원 수준의 고료를 책정한 채 평론을 청탁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기관이 드물지 않고, 각종 수당 역시 겨우 몇 만원에 불과한 곳도 수두룩하다. 심지어 한 달 내내 작성한 평론을 보냈더니 원고료로 달랑 2만원을 입금해 충격을 안긴 지역재단도 있다. 살아가는 곳은 현실인데 노동의 대가는 초현실주의적인 현재를 말하면 혹자는 '안하면 그만이지 않느냐'고 되묻는다. 그렇다. 그런데 스스로도 민망해서인지 기관 담당자들은 대체로 섭의 승낙 후 또는 현장에서야 상세한 안내를 한다. 설사 알게 된들 돈 몇 푼에 연연하는 쫓겨난 사람인 냥 취급될 듯싶어 평론가들의 다수는 노동의 값이 얼마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원체 돈 얘기를 꺼리는 미술계 분위기에다 무언가에 기여한다는 사명감, 책임감, 역할론 따위가 대두될 경우 마음과 달리 입은 더욱 무거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니다 싶어 공식적으로 항의한 경우도 있다. 전업비평가가 손에 짚히는 상황을 인지한다면 현재의 일도당도않은 보수체계는 개선되어야 마땅하고, 그러하지 못한다면 훗날

후배들에게 선배들의 사례가 하나의 원칙으로 적용될 것이란 판단에 책임과 역할에 상응하는 대가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그럴 때마다 기관 관계자들은 '행정'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개인적으로야 턱없이 부족함을 이해하지만 그 더디고 복잡하며 개념 없는 행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보니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을 바꿔야 하는데 그조차 쉽지 않은 모양이다. 미술계 생태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행정이 전문성을 떨어뜨린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수를 외면하는 정책자들의 낙후된 인식은 관련 인적 기반을 위축시키고 많은 부분을 아마추어화한다. 물론 짜들은 인적 기반은 한국문화예술의 질적 경쟁력 면에서도 좋을 게 없다. 그러나 우리네 행정은 이런 자각에 인색한 게 사실이다. 공공기관들은 열정과 애정을 빌미로 한 재능기부라는 병풍 속에 전문가들을 앉히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 제대로 된 소명의식을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누군가의 경험과 지식, 노동과 시간은 공짜가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 특히 초라한 대가와 직함을 교환하느라 짐짓 모른 체 해온 미술계 문화공예사들 또한 스스로를 성찰해야 옳다. /미술평론가

기아차 노사, 전남 화순에 1억 상당 후원품 전달

경로당·복지시설·저소득 가정에 TV·전기밥솥·세탁기 등 지원

기아자동차 노사가 광주공장 인근 농촌 지역에 1억원 상당 후원품을 전달했다. 11일 기아차에 따르면 강상호 기아차 노조지부장과 송교만 노무지원사업부장 등 노사 관계자 20여명이 지난 9일 전남 화순군을 찾아 이웃돕기 물품을 전달했다. 기아차 노사는 경로당과 복지시설, 저소득 가정에 전해달라며 TV, 전기밥솥, 세탁기, 컴퓨터, 김치냉장고 등 1억원 상당의 생활 물품을 맡겼다. 노사는 2008년부터 강원 횡성, 전북 장수, 충남 청양 등 농촌 지역에 총 110억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또 교통사고유



기아자동차 노사가 광주공장 인근 농촌 지역에 1억원 상당 후원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자녀 장학금 지급, 복지시설 후원, 김장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기아차 관계자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소외이웃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회공헌활동과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신재생에너지정책담당장 황수성 ◇국장급 전보 △산업기술정책관 김현철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이상훈 ◇과장급 전보 △산업기반총괄과장 박동일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신지현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 서정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 송정수 △우정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임재덕

부음

- ▲ 강일환씨 별세, 강진수(최동원기념사업회 사무총장)씨 부친상 = 11일 오후 3시 5분, 부산시민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8시, 051-636-4444
- ▲ 조갑희씨 별세, 조용(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씨 부친상 = 10일 오전 6시 2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6시, 02-2227-7584
- ▲ 손여락 씨 (전 상주시 안전행정국장) 모친상 = 11일, 상주제일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9시, 장지 청리면 청하리 선영, 010-9892-6435



맥도날드, '주방 공개의 날' 성료

맥도날드는 지난 9일과 10일 진행된 '주방 공개의 날' 행사가 성료됐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274개 매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 고객만 4000여명에 달하는 등 시작 전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고객들은 평소 들어가지 못했던 맥도날드 레스토랑의 주방 내부를 둘러보며 햄버거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품질과 보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햄버거가 만들어지는 주방의 위생 관리와 조리 과정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맥도날드만의 차별화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경험했다. /맥도날드